“손기정 선생 말고 누굴 뽑겠는가” 영원한 ‘민족의 금메달’

역대 최고 레전드는?

1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똑같은 대답
민족의 한 서린 금메달…압도적 1위로
차범근·박세리 등 개척자들 높은 평가

우리에게 손기정의 금메달은 ‘불멸’로서 기억된다. 왜 우리는 고(故) 손기정 선생의 1936년 독일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잊지 못할까?

스포츠동아는 2008년 3월 24일 창간호에서 역대 올림픽 최고스타를 설문 조사했다. 당시에도 대한민국스포츠를 이끄는 ‘종목별 전문가 100인’에게 물었다. 무려 29명이 손기정을 1위로 뽑았다. 2위는 1표 차이로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의 황영조(28명이 선정)였다. 이 두 금메달은 민족의 한(恨)으로 연결된다.

손기정의 금메달은 지금도 ‘일본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사건’에서 알 수 있듯, 손기정의 금메달은 비록 나라는 잃었어도 한국인의 첫 금메달이었다.

이 역사적 상징성은 세월이 흐를수록 광채가 더욱 강렬해지는 듯하다. 2018년 스포츠동아는 1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 똑같은 형식의 설문을 실시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전문가 100인의 명단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들을 향한 물음은 같았다.

‘한국 스포츠 역사상 종목 불문 최고 영웅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지금이 아니라 과거와 지금을 포함하는 역사상에서 골라달라고 물었다. 스타가 아니라 영웅을 뽑아달라고 청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체육의 ‘올 타임 넘버원’을 찾는 질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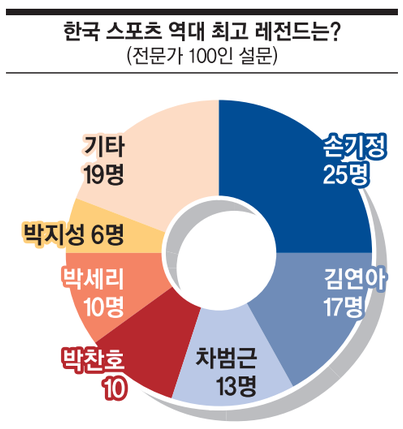
영속성이 포함되었기에 답은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손기정. 25명의 전문가들이 첫 손가락에 꼽았다.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손기정 선생 말고, 누구를 뽑겠는가?”였다.

TV도,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손기정보다 더 많은 금메달을 따낸 선수도 많았다. 손기정의 불멸성은 수량으로 측정될 수 없는 영역이다. 기억으로, 구전(口傳)으로 손기정은 전설이 됐다. 세상 모든 희귀한 것들이 그렇듯이, 시간이 쌓일수록 그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는 법이다.

손기정의 뒤를 이어 김연아(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가 17표로 2위에 올랐다. 김연아가 10년 동안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피겨 선수로서는 이미 은퇴했지만 김연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목격했듯, 대한민국 스포츠에서 하나의 아이콘이 됐다.

한국인은 최초를 좋아한다. 그 개척정신을 사랑하는 것일 테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한국축구의 가능성을 입증한 차범근 전 감독이 13표를 받았다. 한국인 첫 메이저리그라는 위상을 지닌 코리안특급 박찬호(10표)도 은퇴 후 여전히 레전드로서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자골프 최고 권위의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서 우승한 박세리(10표) 역시 영원히 기억될 선수의 반열에 올랐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고(故) 손기정 선생이 1936년 독일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수여식에서 월계관을 쓴 채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동아일보는 당시 손기정 선생의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삭제해 보도했다. 손 선생은 스포츠 100인 설문에서 역대 최고 레전드로 선정됐다. 스포츠동아DB


스포츠동아가 진행한 스포츠 전문가 100인 설문에서 종목별 최고 레전드에 선정된 차범근(축구·왼쪽부터), 허재(농구), 황영조(일반체육), 박찬호(야구), 박세리(골프), 김연경(배구). 스포츠동아DB

축구 하면 차범근…농구 하면 허재

종목별 최고 레전드는?

배구 김연경, 현역 선수 레전드 영예

스포츠동아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스포츠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대 프로스포츠 전문가들이 뽑은 종목별 최고의 스타는 박찬호(야구)와 차범근(축구), 김연경(배구), 허재(농구)로 나타났다.

박찬호는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라는 타이틀 자체만으로 큰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다. 그가 작성한 메이저리그 동양인 최다승(124승) 기록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 2011시즌 일본프로야구(오릭스), 2012시즌 KBO리그(한화) 무대를 밟고 은퇴한 뒤에도 사회공헌활동과 방송활동을 하며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야구인 20명 가운데 8명이 야구계에서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영웅으로 그를 지목했다.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은 축구인 20명 가운데 11명으로부터 표를 받았다. 차 전 감독은 1979년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 진출해 1980년과 1988년(레버쿠젠) 팀의 유럽축구연맹(UEFA)컵 우승을 이끌며 한국 축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1980년대에는 한국 하면 차붐(차범근의 별명)이었다.” 설문에 응한 한 체육인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배구계 최고의 영웅은 15명의 배구인 가운데 가장 많은 6명의 표를 받은 김연경(상하이)이 뽑혔다. 국가대표팀 주장인 그는 V리그(흥국생명)와 일본(JT), 터키(페네르바체) 무대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2017~2018시즌에는 중국 무대에서 또 한 번의 우승에 도전한다. 대표팀의 2014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과 2016리우올림픽 8강 진출에 일조하기도 했다.

남자농구대표팀 허재 감독은 농구인 15명 중 최다인 5명의 표를 받았고, 골프에선 박세리와 박인비, 최상호, 최경주가 골프인 10명 중 각각 2명의 표를 받았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전문가가 뽑은 ‘우리 종목 최고 레전드’는?

종목	이름
야구	박찬호
축구	차범근
농구	허재
배구	김연경
골프	박세리 · 박인비 · 최경주 · 최상호
일반체육	황영조

※ 골프는 4명 공동 1위

전설이 된 박찬호

종목별 스타 야구 레전드 선정
10년전 창간호 최고 스타 위엄

스포츠동아는 지난 2008년 3월 24일, 창간호 특별기획을 통해 스포츠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각 종목별 스타와 함께 한국 스포츠 역대 최고스타를 묻는 설문을 실시했다.

10년 전 한국스포츠를 빛낸 역대 최고의 스타에는 19명의 선택을 받은 메이저리거 박찬호가 선정됐다. 2018년 스포츠동아 창간 10주년 기념 설문 결과를 통해 한국 스포츠 최고 스타가 축구 손흥민(토트넘)으로 확인됐다면, 10년 전 스포츠 전문가들이 뽑은 최고 스타는 박찬호였다.

1994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박찬호는 명문 LA 다저스의 간판 투수로 활약하는 등 개인은 물론이고 한국인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는 마무리 투수로도 활약해 한국야구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박찬호는 이번 2018년 설문에서도 종목별(야구) 최고 레전드로 선정돼 여전한 위용을 과시했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고(故) 손기정 선생은 2008년 설문에서 역대 최고의 올림픽 영웅으로 선정됐다. 당시 100명중 29명이 손기정 선생을 최고의 올림픽 영웅으로 꼽았다. 손기정 선생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나라를 잃은 가운데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긍지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감동을 남겼다.

10년 전 종목별 최고 스타는 축구 차범근, 농구 허재였다. 배구에서는 강만수가 15명의 배구 투표 인단 중 절반에 가까운 7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